

영광군, 인구·일자리 성과 빛났다

합계출산율 전국 2위, 증가율 전국 1위

전남도평가 저출산·인구·일자리정책 3관왕

영광군은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일자리·청년 정책 추진으로 큰 성과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영광군 최초로 우수상(시상금 9천만원)을 수상한 것에 이어 2019년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 종합평가 대상(시상금 1천만원), 인구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상사업비 3천만원),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시상금 2천만원)에 연이어 선정되어 올 한해 농사의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인구정책분야에서는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8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문제 극복 전 군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인구비전 선포식, 10월 인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계층별 간담회 19회와 인구교육 38회를 실시했다.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관내 277개 기관사회단체·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구문제

극복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찾아가는 주니어전 서비스'와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협조담당제'를 운영하여 98명을 전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전년 대비 56% 적게 인구가 감소했으며 이는 인구가 증가한 순천시와 나주시를 제외한 전남 20개 지자체 중 네 번째로 감소폭이 낮은 것이다.

결혼출산정책은 2019년 영광군의 히트 상품으로 손꼽힌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1.82명으로 전국 2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영광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혼장려금 5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최고 3,500만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출산축하용품 30만원, 신혼(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2020년에는 신혼(예비)부부 교실 운영, 다자녀가정 여행지원 등



신규시책을 추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노동부 주관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과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실업자 교육을 지원하여 요양보호사 50명, 드론전문가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경기침체, 인구감소의 고용악화 상황에서도 고용률과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 또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했다.

영광군은 청년정책 선도 지자체로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제1회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청년센터 운영 등으로 청년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취업활동수당, 청년희망 다딤돌 등 청년의 경제활동과 창업을 지원하는 영광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한 영광군의 선택과 노력이 인정받은 기쁜 한 해였다"면서 "영광군의회와 기관사회단체, 영광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는 더 일하기 좋고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담양군, 악기 연주과정 신규 수강생 모집



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인원, 과정별 시간 및 장소 등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금, 피리, 가야금 연주자 양성 과정은 담양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악기 등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지만 가야금 과정의 경우 기증받은 가야금을 이용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연주자 양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인문학교육부서에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활기와 즐거움을 더해줄 악기 연주자 양성과정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선정

화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화순군은 내년에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설치하게 됐다.

새로 생길 화순농협 로컬푸드 2호점은 화순읍 삼천리의 폐업한 식당을 리모델링해 내년 7월 개장하고 여신 업무도 같이 볼 예정이다.

설치 예정 장소 주변은 아파트 7개 단지에 261세대가 군집해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자리 잡아 인근 주민은 물론 광주와 보성·고흥 방면을 지나는 방문 고객까지 다수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농협 로컬푸드 관계자는 "문화 행사와 직매장 농산물을 활



용한 즉석 반찬코너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신소비 패턴에 맞춰 1일 한정 수량을 정해 아침, 저녁 배달전락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에는 현재 화순읍과 도곡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3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고흥군은 지난 12월 19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제25차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회는 각계 산·학·연·관 국내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고흥의 우주항공산업 추진 현황, 드론산업 국내·외 동향과 사례,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보고와 함께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송귀근 군수는 환영사에서 "고흥은 나로우주센터, 항공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산업, 부대시설을 활용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중의 하나인 드론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하고 "드론 및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참석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자문"을 당부했다.

윤용현(위원장) 국민대학교 교수는 "드론산업 국내·외 동향 및 사례" 발표에서 4차산업 혁명과 신성장 동력산업 구축을 위한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을 통한 경쟁력 제고, 융합얼라이언스 추진을 위해 고흥 드론비행시험장·인증·UTM 실증센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시간에는 "드론산업 종합클러스터 구축,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우주과학문화 테마존 구축을 위한 우주테마파크 조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제시로 군 시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내 유일의 국가주도 비행시험장을 활용한 인간 무인기 항공경진 대회 등 각종 테스트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고흥군과 군부대, 항우연 및 민간기업과 MOU 체결을 통한 기업유치도 모,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간결한 네이밍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고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전국유일의 우주테마시설과 우주발사 진동체험관, 체험시설 등 독특한 시설의 필요성과, UAM 테스트타운 조성, 초소형 위성 테마파크 조성, 달나라 체험시설, 드론 힙차량대회 등 여러가지 의견에 자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협의회의 자문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우주과학문화 콘텐츠 확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인프라 구축 확대, 드론산업기반 및 연관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여수시, 국토부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

여수시는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관 '2019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국토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고,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2년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안정성과 쾌적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19개 지표, 61개 항목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광양만권 3개 시(여수, 순천, 광양) 광역시내버스 개

통, 버스 정류장 발열의자·온실텐트·에어컨 설치,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마을버스를 도입해 고지대 주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했고, 운수종사자 교육권을 신축해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했다.

버스정보안내기(BIT) 확충과 교통정보 앱 기능 개선 등 교통행정 선진화에 힘썼고, 초등학생 100원 버스를 시행해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여수=김도현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